

'사태' 일단락...선거국면 돌입

서울고법 항소각하 이후 조계종

정화회의측이 낸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항소를 서울고법이 각하한 이후 조계종사태가 빠르게 수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판결로 정화회의의 힘이 약화돼 총무원장선거가 관심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며, 이에 따라 이번 사태는 새로 뽑히는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수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고법판결 영향

고법 판결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총무원장 직무대행 효력 논란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 계류중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직무대행은 유효하다"는 정화회의의 주장은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가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가 예외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각하 판결을 내렸으므로, 상고심에서도 정화회의의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법조인들의 전망이다.

이번 사태 중재 움직임도 정화회의가 선분사와 해남사를 일시 접거하는 등 사태의 여파를 전국의 사찰로 확산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또 정화회의가 대화를 제의하며 10개항을

제시했으나, 곧바로 선분사를 접수하면서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이다.

총무원장 선거

법원에 의해 총무원장직 무효판결을 받은 고산스님과 전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이 29일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일부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이번 조계종사태를 비롯한 고질적인 부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서면, 재가불자의 중단 및 사찰 운영 참여 등이 쟁점이 된다는 것이다. 총무원장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의 역할과 권한 조정 등 전반적인 권력구조의 변화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번 선거의 특징은 문중간의 경쟁보다는 큰 내용을 겪은 뒤여서 종단의 안정과 화합, 21세기를 겨는 불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경쟁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총회원의 81명(현재는 78명)과 24개 교구선거인단 240명이 뽑는 것이지만, 정책 경쟁을 바라는 불자들의 여론이 투표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번 사태를 놓고 지선스님 지지자로 알려진

정화회의 세약화...화합수순 밟아야 문중 경쟁보다 정책우선 선거예상 분규근절 참회·자정운동 움직임도

중진급 총회위원은 "이번 사태는 정화회의에 의해 발단됐지만, 질 재판이 아니었는데 저 종단을 혼란에 빠뜨린 고산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책임론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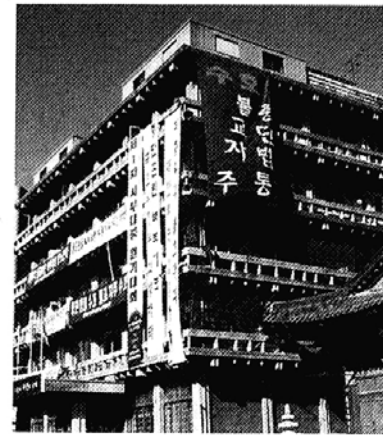
이에 대해 "총무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법원의 판결로 불교의 자주권을 유린당했으며, 자주권회복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고산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재추대하는 것"이라는 말로 고산스님 출마 당위성을 설명하는 이들도 있다.

전 총회위원장 정대스님과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의 출마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본인이 고사하고 있거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고산-지선스님의 경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후보는 7일 후보등록 마감일이다가오면서 윤곽이 드러난다.

정화회의에 참여했던 스님들의 선거 참여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 참여할 경우 정화회의의 조직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있으며, 출마보다는 특정 후보 지지의 모양을 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정운동 움직임

정화회의가 대화를 제의하며 10개항을



○정화회의가 낸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항소심이 각하되며 조계종사태는 수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총무원 청사 출입문은 열리지 않고 있다.

많은 불자들은 이번 조계종사태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선거에 앞서 조계사의 신행공간 회복, 12일 발생한 폭력사태를 비롯 조계종사태에 대한 참회, 나아가 자정운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해에 이어 또다시 보여준 폭력사태와 고질적인 부규 재연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참회와 자정이라는 것이다.

한 재가불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유아무야 넘어가면 조계종은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며 "참회와 자정운동을 통해 비불교적인 행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계사 사면을 둘러싼 찬반논쟁, 사찰재정 공개, 중단 및 사찰 운영에 사부대중 참여 등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밀운스님 제기 '대사면론' 놓고 교계 찬반여론 팽팽

"분규청산 계기"... "또 분란만든다"

밀운스님(봉선사 주지)의 대사면론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사면론은 총무원장선거와 맞물려 후보들의 공약사항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어, 이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밀운스님은 10월 25일 타워호텔에서 법장 수덕사 주지, 종인 관음사 주지, 총회위원인 정대종하, 정 총무원장 초우, 전 범어사 주지 벽파스님 등과 만나 조계종사태 중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50년대 불교정화 이후 정치적 희생자가 너무 많다. 전반적으로 다 풀어야 한다. 재조사해서 풀어주는 뜻이다"며 대사면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총회위원과 총무원 소임자 등 스님들은 즉각 찬반의 반응을 보였다. 찬성하는 쪽은 "조계종 50년 부규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재조사를 통해 사면해야 하며, 재산관련 징계자의 재산 환수 및 해당 사찰의 중단 등록, 사면하되 일정 기간 동안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하는 쪽의 스님들은 "종단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사면을 하더라도 징계자들의 참회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아가 "인적 청산을 통해 부규의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가연대 정운성 사무처장은 "물리력에 의한 문제 해결 관행의 근절과 비승가적 승려의 축출, 불교정신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찰재정의 투명화, 사부대중 공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찰과 종단이 되도록 제도의 도입과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총무원 움직임

"대타협 앞서 참회 우선"

○...총무원은 정화회의가 10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화 제의에 대해 대화에 앞서 참회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자들의(정화회의) 대타협이라는 표현 속에는 지난 해 사태 이후 현재까지 불자들에게는 물론 사회적 세계적으로 끼쳤던 해악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유아무야 끝내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며 "허심탄화한 대화를 요구한다면 앞서 지난 해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한 참회 각성과 오늘과 같은(선분사 접수) 폭력사태를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은 정화회의의 선분사 접수에 대해 "자신들의 거절을 확보하고 차례로 전국의 유명 사찰을 강탈하려는 마작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고 총무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저녁 정화회의측에서 인원을 동원해 총무원을 접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에 따라 총무원은 다음 날 새벽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한때 긴장된 분위기였다. 총무원과 교구원 포교원은 5일 개회하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정책질문에 답변과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서울고법 민사6부가 정화회의의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항소를 각하한 것과 관련, 총무원은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통해 "황도건 직무대행의 권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이 입증한 것"이라며 "항소가 계류중이기 때문에 보안 관례가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직무대행자는 그 권한이 유효하다는 정화회의의 그 동안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논평했다.

정화회의 움직임

"사태수습 10대 원칙 제안"

○...정화회의측은 10월 26일 관동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단사태 수습을 위한 10대 원칙을 제안했다. 10대 원칙은 △도전 직무대행 상호인정 △50년대 불교정화이념 계승 △밀운스님이 단행한 정화회의의 대사면 복권조치 단행 △쌍방의 징계 원천무효 상호 확인 △영속총림 방장 승인 취소 결의와 총림해제 결의 무효화 △중양총회와 정화개혁회의의 쌍방 합의하에 자진 해산 △새로운 종단 입법기구와 선거인단 구성을 통해 이번엔 한해 현행법 따른 선거 실시 △양측 합의하에 종정 재추대 △중단의 정화와 개혁조치들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특별기구 설립 △쌍후 정치적인 보복 금지와 허심탄화한 대화 우선 등이다.

○...정화회의는 10월 27일 오후 선분사 갖바위 입구 선별리지 경향식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무원 직영사찰인 선분사의 금고열쇠와 현금 통장 및 인출도장을 보관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공무수행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화회의는 "총무원측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겠다"며 "선분사 총무행정인 정상화 및 때까지 순교하더라도 탈환하겠다"고 말했다. 정화회의는 29일 새벽 갖바위 기도처를 점거했다.

○...정화회의는 28일 오전 법열스님을 비롯해 10여명이 울산 해남사에 들어가 총무스님에게 "법적인 주지이니 해남사를 인수하겠다"고 통보했다. 통도사에 있던 해남사 주지 성본스님이 돌아와 인계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자 법열스님을 비롯한 정화회의측 스님들은 해남사에서 나와 들어갔다. 최재1부

불교TV이사회 허사장 해임결의 배경

5공자금 유입설 악재

허사장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준비

불교TV이사회가 허문도 사장을 퇴진키로 결의한 것은 경영정상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노조와 이사회에서 새 경영자로 선임하고 있는 2. 3명의 투자자들이 5공인사인 허 사장이 대표이사로서 있는 한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쳤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사회는 허 사장 퇴진 결의 이후 불교TV의 한 관계자는 "5공자금 유입설 등의 의혹 때문에 투자를 기피했던 사람들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말로 허 사장 퇴임 배경을 뒷받침했다. 실제 이수덕 대표이사 권한대행이 지난 6월 투자하자 곧바로 세무조사를 받았던 적도 있다.

신하스님은 28일 이 권한대행에게 "18일 주주총회 때까지 투자자 물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때까지 비상체제로 회사를 맡아달라고 말해 새 투자자 영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권한대행도 "월 수입로 8천만원으로 임대료 지불 등 급한 불을 끄는 한편 뉴스 프로그램부터 제작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편 허 사장이 이사회 결의에 반발하며 해임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낼 뜻을 밝히고 있어 불교TV 문제가 자칫 법정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불교문화유산이 걱정이다. 위기는 안락에서 온다. 밖에서 오는 요소로는 타종교의 맹목과 사찰 주변의 환경이다. 남산의 불상들이 붉은 칠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가야산처럼 골짜기를 지켰다는 역사가 일사불란해 되었다. 이런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불교계는 다양한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불교 고유의 전통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교리와 역사도 알아야 하고, 환경에 대한 과학기술 전문가, 행정 법률의 조연자 등 필요한 인력을 적극 키워 나가야 한다.

그보다 심각한 위기는 불교 내부에 있다. 모든 문화유산이 그렇지만 불교의 그것 또한 지속적 자양과 관리가 없으면 쇠퇴하고 소멸하게 되어 있다. 전통을 그저 유지하는 것만도 힘든 판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신비주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지 않는 길은 곧 물러나는 길이다. 불교에 발본의 창조적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사상의 경우는 기본경전이 책이나 문자로 남아 있고, 또 이 방면에 그동안 많은 힘을 쏟아 왔기에, 성과를 기대해도 좋겠다. 그렇지만 건물이나 탑 등의 유형적 형태나 단청이나 세공 등의 무형적 기술은 뛰

어난 감식안과 오랜 숙련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준비와 계승의 지속적 축적과 그 협력을 통해서만 살아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불교계는 장인(匠人)을 우대하고 그들의 기술을 존중하며, 소멸해가는 것을 안타까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분야는 불교의 장식이나 여기(除技)가 아니라 바로 본질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월의 풍파에 할거져 질간은 자주 날아가고 허물어지고 있다. 지금 새로 조영되고 건립되는 전각이나 불탑 등은 차마 보이지 못할 것들이 많다. 주련이나 현판의 글씨도 속기(俗氣)가 완연하고, 불상과 벽화, 범종이나 탑과 소멸하게 되어 있다. 전통을 그저 유지하는 것만도 힘든 판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신비주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지 않는 길은 곧 물러나는 길이다. 불교에 발본의 창조적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사상의 경우는 기본경전이 책이나 문자로 남아 있고, 또 이 방면에 그동안 많은 힘을 쏟아 왔기에, 성과를 기대해도 좋겠다. 그렇지만 건물이나 탑 등의 유형적 형태나 단청이나 세공 등의 무형적 기술은 뛰

어난 감식안과 오랜 숙련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준비와 계승의 지속적 축적과 그 협력을 통해서만 살아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불교계는 장인(匠人)을 우대하고 그들의 기술을 존중하며, 소멸해가는 것을 안타까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분야는 불교의 장식이나 여기(除技)가 아니라 바로 본질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월의 풍파에 할거져 질간은 자주 날아가고 허물어지고 있다. 지금 새로 조영되고 건립되는 전각이나 불탑 등은 차마 보이지 못할 것들이 많다. 주련이나 현판의 글씨도 속기(俗氣)가 완연하고, 불상과 벽화, 범종이나 탑과 소멸하게 되어 있다. 전통을 그저 유지하는 것만도 힘든 판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신비주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지 않는 길은 곧 물러나는 길이다. 불교에 발본의 창조적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사상의 경우는 기본경전이 책이나 문자로 남아 있고, 또 이 방면에 그동안 많은 힘을 쏟아 왔기에, 성과를 기대해도 좋겠다. 그렇지만 건물이나 탑 등의 유형적 형태나 단청이나 세공 등의 무형적 기술은 뛰

어난 감식안과 오랜 숙련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준비와 계승의 지속적 축적과 그 협력을 통해서만 살아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불교계는 장인(匠人)을 우대하고 그들의 기술을 존중하며, 소멸해가는 것을 안타까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분야는 불교의 장식이나 여기(除技)가 아니라 바로 본질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월의 풍파에 할거져 질간은 자주 날아가고 허물어지고 있다. 지금 새로 조영되고 건립되는 전각이나 불탑 등은 차마 보이지 못할 것들이 많다. 주련이나 현판의 글씨도 속기(俗氣)가 완연하고, 불상과 벽화, 범종이나 탑과 소멸하게 되어 있다. 전통을 그저 유지하는 것만도 힘든 판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신비주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지 않는 길은 곧 물러나는 길이다. 불교에 발본의 창조적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사상의 경우는 기본경전이 책이나 문자로 남아 있고, 또 이 방면에 그동안 많은 힘을 쏟아 왔기에, 성과를 기대해도 좋겠다. 그렇지만 건물이나 탑 등의 유형적 형태나 단청이나 세공 등의 무형적 기술은 뛰

어난 감식안과 오랜 숙련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준비와 계승의 지속적 축적과 그 협력을 통해서만 살아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불교계는 장인(匠人)을 우대하고 그들의 기술을 존중하며, 소멸해가는 것을 안타까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분야는 불교의 장식이나 여기(除技)가 아니라 바로 본질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월의 풍파에 할거져 질간은 자주 날아가고 허물어지고 있다. 지금 새로 조영되고 건립되는 전각이나 불탑 등은 차마 보이지 못할 것들이 많다. 주련이나 현판의 글씨도 속기(俗氣)가 완연하고, 불상과 벽화, 범종이나 탑과 소멸하게 되어 있다. 전통을 그저 유지하는 것만도 힘든 판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신비주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지 않는 길은 곧 물러나는 길이다. 불교에 발본의 창조적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사상의 경우는 기본경전이 책이나 문자로 남아 있고, 또 이 방면에 그동안 많은 힘을 쏟아 왔기에, 성과를 기대해도 좋겠다. 그렇지만 건물이나 탑 등의 유형적 형태나 단청이나 세공 등의 무형적 기술은 뛰

어난 감식안과 오랜 숙련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준비와 계승의 지속적 축적과 그 협력을 통해서만 살아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불교계는 장인(匠人)을 우대하고 그들의 기술을 존중하며, 소멸해가는 것을 안타까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분야는 불교의 장식이나 여기(除技)가 아니라 바로 본질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월의 풍파에 할거져 질간은 자주 날아가고 허물어지고 있다. 지금 새로 조영되고 건립되는 전각이나 불탑 등은 차마 보이지 못할 것들이 많다. 주련이나 현판의 글씨도 속기(俗氣)가 완연하고, 불상과 벽화, 범종이나 탑과 소멸하게 되어 있다. 전통을 그저 유지하는 것만도 힘든 판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신비주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지 않는 길은 곧 물러나는 길이다. 불교에 발본의 창조적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사상의 경우는 기본경전이 책이나 문자로 남아 있고, 또 이 방면에 그동안 많은 힘을 쏟아 왔기에, 성과를 기대해도 좋겠다. 그렇지만 건물이나 탑 등의 유형적 형태나 단청이나 세공 등의 무형적 기술은 뛰

어난 감식안과 오랜 숙련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준비와 계승의 지속적 축적과 그 협력을 통해서만 살아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불교계는 장인(匠人)을 우대하고 그들의 기술을 존중하며, 소멸해가는 것을 안타까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분야는 불교의 장식이나 여기(除技)가 아니라 바로 본질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월의 풍파에 할거져 질간은 자주 날아가고 허물어지고 있다. 지금 새로 조영되고 건립되는 전각이나 불탑 등은 차마 보이지 못할 것들이 많다. 주련이나 현판의 글씨도 속기(俗氣)가 완연하고, 불상과 벽화, 범종이나 탑과 소멸하게 되어 있다. 전통을 그저 유지하는 것만도 힘든 판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신비주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지 않는 길은 곧 물러나는 길이다. 불교에 발본의 창조적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사상의 경우는 기본경전이 책이나 문자로 남아 있고, 또 이 방면에 그동안 많은 힘을 쏟아 왔기에, 성과를 기대해도 좋겠다. 그렇지만 건물이나 탑 등의 유형적 형태나 단청이나 세공 등의 무형적 기술은 뛰

어난 감식안과 오랜 숙련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준비와 계승의 지속적 축적과 그 협력을 통해서만 살아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불교계는 장인(匠人)을 우대하고 그들의 기술을 존중하며, 소멸해가는 것을 안타까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분야는 불교의 장식이나 여기(除技)가 아니라 바로 본질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월의 풍파에 할거져 질간은 자주 날아가고 허물어지고 있다. 지금 새로 조영되고 건립되는 전각이나 불탑 등은 차마 보이지 못할 것들이 많다. 주련이나 현판의 글씨도 속기(俗氣)가 완연하고, 불상과 벽화, 범종이나 탑과 소멸하게 되어 있다. 전통을 그저 유지하는 것만도 힘든 판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신비주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지 않는 길은 곧 물러나는 길이다. 불교에 발본의 창조적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사상의 경우는 기본경전이 책이나 문자로 남아 있고, 또 이 방면에 그동안 많은 힘을 쏟아 왔기에, 성과를 기대해도 좋겠다. 그렇지만 건물이나 탑 등의 유형적 형태나 단청이나 세공 등의 무형적 기술은 뛰

어난 감식안과 오랜 숙련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준비와 계승의 지속적 축적과 그 협력을 통해서만 살아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불교계는 장인(匠人)을 우대하고 그들의 기술을 존중하며, 소멸해가는 것을 안타까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분야는 불교의 장식이나 여기(除技)가 아니라 바로 본질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월의 풍파에 할거져 질간은 자주 날아가고 허물어지고 있다. 지금 새로 조영되고 건립되는 전각이나 불탑 등은 차마 보이지 못할 것들이 많다. 주련이나 현판의 글씨도 속기(俗氣)가 완연하고, 불상과 벽화, 범종이나 탑과 소멸하게 되어 있다. 전통을 그저 유지하는 것만도 힘든 판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신비주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지 않는 길은 곧 물러나는 길이다. 불교에 발본의 창조적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사상의 경우는 기본경전이 책이나 문자로 남아 있고, 또 이 방면에 그동안 많은 힘을 쏟아 왔기에, 성과를 기대해도 좋겠다. 그렇지만 건물이나 탑 등의 유형적 형태나 단청이나 세공 등의 무형적 기술은 뛰

어난 감식안과 오랜 숙련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준비와 계승의 지속적 축적과 그 협력을 통해서만 살아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불교계는 장인(匠人)을 우대하고 그들의 기술을 존중하며, 소멸해가는 것을 안타까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분야는 불교의 장식이나 여기(除技)가 아니라 바로 본질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월의 풍파에 할거져 질간은 자주 날아가고 허물어지고 있다. 지금 새로 조영되고 건립되는 전각이나 불탑 등은 차마 보이지 못할 것들이 많다. 주련이나 현판의 글씨도 속기(俗氣)가 완연하고, 불상과 벽화, 범종이나 탑과 소멸하게 되어 있다. 전통을 그저 유지하는 것만도 힘든 판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신비주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지 않는 길은 곧 물러나는 길이다. 불교에 발본의 창조적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사상의 경우는 기본경전이 책이나 문자로 남아 있고, 또 이 방면에 그동안 많은 힘을 쏟아 왔기에, 성과를 기대해도 좋겠다. 그렇지만 건물이나 탑 등의 유형적 형태나 단청이나 세공 등의 무형적 기술은 뛰

승광사 서울분원 법륜사 법회 안내

귀의 상보 하옵고 수행과 포교의 전당인 법륜사에서는 새 주지스님을 모시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불자들에게의 만남을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불자들의 수회 동참을 바랍니다.

일요 정기법회

불교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시간이 없는 직장인 및 청·장년층을 위한 일요정기법회를 개설하였습니다. 일요일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하여 자신을 반성하고 새롭게 발전하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의 생활이 언제나 정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불자가 되도록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1.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2. 장소 : 법륜사 3층 대웅보전
- 3. 대상 : 불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
- 4. 법사 : 주지스님 및 초청법사

법륜 불교대학

- 1. 내용 : 기초교리, 반야심경, 금강경
- 2. 일시 : ● 낮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저녁반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 3. 강사 : 오경스님(법륜사 주지)
- 4. 동참금 : 5만원 (3개월분)

- 선택조

- 1. 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2. 강사 : 백문수화(동국대 사회교육원)
- 3. 수강료 : 4만원 (2개월분)

- 시민선량

- 1.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2. 대상 : 참선에 관심 있는 모든 분
- 3. 동참금 : 5만원 (3개월분)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철야정진

서옹 큰스님 초청 특별 대법회

법륜사에서는 10월 초하루 기원법회에 서옹 큰스님을 모시고 특별 대법회를 병행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큰스님 법문을 통하여 부처님의 정법의 향기를 느끼고 삶의 지혜를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 1. 일시 : 1999년 11월 8일(음력 10월 초하루) 오전 10시 30분
- 2. 장소 : 법륜사 3층 대웅보전
- 3. 법사 : 서옹 큰스님

